오늘의 게시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방향과 향후 과제 세미나

오후 2시 나주시청

행사

〈17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해인 수녀가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를 주제로 강연.

▲경열공 정지장군 제 615주기 추모행사=오전 11시 경열사.

▲제 2회 쌀소비 촉진행사=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제 131회 강진 다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이 '혁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

▲제 14회 여수시 수산업 경영인대회=오전 11시 여수시 진남실내체육관. 수산업 경영인과 가족 등 600여명 참석 예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방향과 향후 과제 세미나=오후 2시 나주시청. 진영환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센터장이 '우리나라 혁신도시 개발방향 및 향후 과제', 노경수 광주대 교수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동 건립 기공식=오후 2시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연구동 건설현장. 26억원을 들여 지상 2층·지하 1층(연면적 2천314㎡)의 연구동을 오는 2007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

〈18일〉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오후 2시 목포 해양대 대강당. 전남농아인협회 주관으로, 전남지역 수화 동아리 15개팀 100여명이 참여해 수화 경연 및 초당·목포·대불대학교 등 5개 수화 동아리의 연합 수료식.

▲2006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 선포식=오전 11시 순천시 조계산 선암사 주차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박승태 광주지방노동청장·황금추 전남경제인협회장·이신원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하며 산업 평화 선언문 낭독.

▲남도예술은행 서화작품 토요경매=오전 11시 진도군 운림산방 역사적시관.

공연

▲2006 빛고을 소리청=17~24일(토·일 제외)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2006 광주평화연극제 개막공연 연극 'Love Rush! 사랑아 달려!'=18일(토) 낮 12시, 오후 4시, 19일(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 336회 토요민속여행=18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시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물 오르다'라는 주제로, 물의 역사·문화·미학·사회학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 김수남·박종우 등 국내작가 9명, 프랑스 마리 폴 네그르 등 해외학자 32명 등 41명 참여. 물 오르다·씻김·영혼의 선물·물의 행성 등 4개 섹션으로 구성.

▲김종일 정년기념전=22일까지 창갤러리. 김종일(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전시. 박주하, 이석원, 이정석, 김주연씨 등 제자와 에뽀끄 회원 70여명 참여.

▲조선대학교 공예도자디자인 졸업전=17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한국노동문화협회 광주지부 회원작품 전시회=18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선묵회전=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마음으로 읽는 아트북 순회전=22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뉴스퀴즈

38.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당이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를 석권했습니다. 이 당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 총 232석을 확보, 과반선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의석과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의회 공화당 지배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회 운영 방식을 비롯, 한미관계, 북핵, 이라크전 등 대내외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년만에 의회 권력을 되찾은 정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민주당 ② 공화당 ③ 국민당 ④ 자유당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야~ 시험끝났다

잇따른 노출 사건이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가수 **아유미**(22)는 생방송 중 격렬한 춤을 추다가 가슴을 고정시키는 속옷이 빠져 노래를 중단하는 사고를 냈고, **G스타** 게임전시회에서 여성 도우미가 댄스 공연 도중 브래지어 모양의 상의가 젖혀지면서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인터넷에서는 이들의 사고 당시 모습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노출 사고의 검색 빈도도 높았다.

개그맨 **강호동(36)의 결혼** 소식도 화제가 됐다. 강호동은 지난 12일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이효진(27)씨와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날 결혼식에는 개그맨 유재석씨가 사회를,이경규씨가 주례를 맡았고 최문순 MBC 사장과 임하룡 이경실 박명수 김원희 송은이 등 연예계 동료들이 대거 참석했다. 두 사람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왔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서울 압구정동에서 신접살림을 차린다.

16일 치러진 **수능** 시험도 검색 빈도가 높았다.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6개 시험지구 97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가 줄을 이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수능 채점 서비스와 예상 등급, 지원 가능 대학 등을 알려주는 '수능 분석 결과' 서비스 등을 문의하는 네티즌도 잇따랐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7연승을 저지하고 우승한 양용은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세계 랭킹 77위인 **양용은**은 지난 12일 중국 상하이 시샨인터내셔널골프장(파72·7165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EPGA)투어 HSBC챔피언스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에 오른 우즈(12언더파)와는 2타 차로, 지난 7월 브리티시오픈 우승 이후 지난달 아멕스챔피언십 우승까지 6개 대회에서 내리 우승하고 이번에 7연승을 노리던 우즈의 꿈은 양용은으로 인해 무산됐다.

양용은은 지난 9월 아시안투어를 겸한 한국오픈 우승으로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어 EPGA 투어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리게 됐으며, 한국 선수로는 2003년 린데 저먼마스터스를 제패한 최경주와 지난 2월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한 위창수에 이어 세 번째 기록을 남겼다.

이외 일본 팬 사인회 문제로 연예인 권상우(30)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촌**(58)씨, 현빈과 성유리가 주연을 맡은 KBS-2TV 새 월화드라마 눈의 여왕, 백윤식·봉태규 주연의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1위	강호동결혼식	6위	애정결핍두남자
2위	세븐키스신	7위	양용은
3위	G스타노출	8위	서방파김태촌
4위	수능	9위	눈의여왕
5위	아유미방송사고	10위	연말정산

월화드라마 '눈의 여왕'의 남녀 주인공 현빈과 성유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음 9월 27일 庚戌)

子 36년생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48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60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72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보라. 84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라. 행운의 숫자 : 17, 29

丑 37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재도 비켜간다. 49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 61년생 용기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73년생 아침은 즐겁다. 85년생 주변의 이성에게 인기가 상승한다. 행운의 숫자 : 03, 45

寅 38년생 오래된 문서가 큰 재물로 변한다. 50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2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74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 36

卯 39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51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 칼자루를 쥐었다. 63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혹하지 마라. 75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1, 35

辰 40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되리라. 52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64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76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수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19, 31

巳 41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53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편하리니 지난다. 65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77년생 윗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으니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라. 행운의 숫자 : 04, 44

午 42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54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66년생 불요불급한 구매로 소비가 생긴다. 78년생 생긴 돈보다는 소비가 클 수니 현명하게 소비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未 43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55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67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79년생 代價가 없는 인덕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니 선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08, 37

申 44년생 단순한 방법이 지름길이다. 56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68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80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제사를 철저하게 마무리 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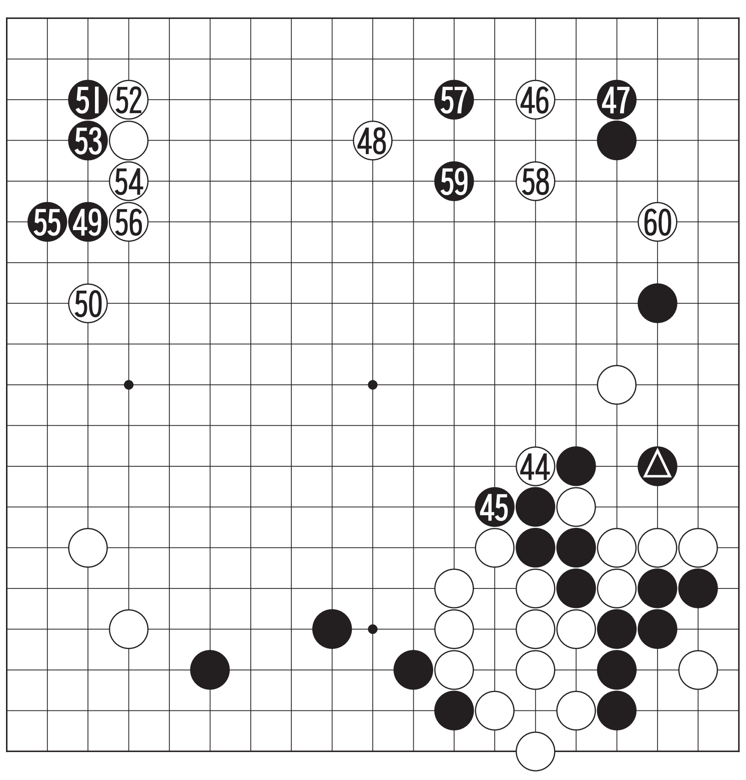
酉 45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57년생 마음의 문을 열면 희망도 보인다. 69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1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옆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돌진하라. 행운의 숫자 : 07, 40

戌 46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58년생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 스스로 만든다. 70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82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05, 26

亥 47년생 과거에 억매이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라. 59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시도하라. 71년생 걱정을 버려라 대부분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83년생 옳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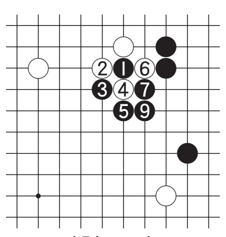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침투와 침투 4보(44~60)

白 정장효 5단 〈포스코〉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우하귀의 전투에서 벌어진 대회전은 백의 판정승. 흑 ▲로 우변 백 다섯점을 잡아 흑의 실리도 상당하나 흑이 원래 주력이던 하변이 무너진 것은 작전실패다.

백 44는 둘 필요가 없는 곳으로 우세를 의식한 정장효 5단의 지나친 손바람이다. 백 46부터 56까지의 정석은 예정된 코스. 다음 흑 57로 쳐들어간 것이 일종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수로 우변쪽을 '참고도'처럼 흑 9까지 지키는 것도 유력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변에 잡아둔 백 다섯점의 뒷맛이 고약해서 우변에 큰 집을 기대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그래서 박 5단이 결단을 내려 57로 쳐들어 가 난전을 유도한다.

정 5단도 지지않는다. 수비에 치중하지 않고 58로 뛰어나간 다음 기합을 넣어 백 60으로 쳐들어 간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루이 9단, 초대 여류 기성 등극

'철녀' 루이 9단이 16일 전북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기 부안 여류기성전 결승전에서 김세실 2단에게 161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국에서 루이 9단은 초반 김2단의 완착을 정확히 응징하며 우위를 차지한 뒤 중앙 전투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여류국수와 여류명인 타이틀 보유자인 루이 9단은 여류기성전마저 우승함으로써 국내 3대 여류기전을 모두 석권, 국내 최강의 여자기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안 여류기성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한 첫 대회로 우승상금은 1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778>

Are you a mind-reader?

자네, 독심가인가?

A:Are you going to buy a video camera?
B:**Are you a mind-reader?** How did you know?
A:I borrowed a magazine from you yesterday, right? On the dog-eared page, there's an ad. for a video camera.
B:I see. But I haven't decided yet which model to buy.

A:자네, 비디오 카메라 살건가?
B:**자네, 독심가인가?** 어떻게 알았지?
A:어제 자네 집에서 잡지를 빌렸었잖아! 접힌 페이지 위에, 비디오 카메라 광고가 나와 있던데.
B:음, 그랬구만. 하지만 난 아직 어떤 모델을 구입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네.

mind-reader : 독심가(讀心家)
- mind-reading : 독심술
- palm-reader : 수상가(손금보는 사람)
dog-eared : 책장'페이지' 모서리가 접힌
ad. = advertisement의 약어
which+(명사)+to 부정사 = 어떤 (명사)를 ~해야 할지.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78>

目覺(めざ)まし時計(どけい)かけた?

시계 맞춰 놨어?

A:何時(なんじ)に起(お)きる?**目覺(めざ)まし時計(どけい)かけた?**
B:もう セットしたよ。
A:ちゃんと 起(お)きろよ。
B:わかってるって。

A:몇시에 일어날 거야? **시계 맞춰 놨어?**
B:벌써 맞춰 놨어
A:제대로 일어나
B:알았다니까

(かけるの 여러 가지뜻)

いすに かける : 의자에 앉다
めがねをかける : 안경을 쓰다
カギを かける : 열쇠를 걸다
時計を壁(かべ)に かける : 시계를 벽에걸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96>

刀子嘴，豆腐心

말씨는 날카로와도 마음은 부드럽다

A:[illegible]
[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A:[illegible]
[illegible]

A:그 사람 너무 무서워, 말투가 너무 [illegible] 정말 참을 수 없어요.
B:[illegible] 그 사람 말씨는 날카로와도 마음은 부드러워요.
A: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96>

告祀(고사)

알릴 고, 제사 사

조선후기의 사람들은 굿이나 제례(祭禮) 같은 종교의식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뜻에서 점(占)이나 주술(呪術), 금기(禁忌)등에 의지하였다. 일반가정에서는 주로 정초(正初)와 가을에 고사(告祀)를 지내며 집안의 복을 빌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어김없이 고사를 지내는데, 집을 지을 때는 성주(城主)고사, 묘 자리를 잡을 때는 명당(明堂)고사, 비를 세울 때는 입비(立碑)고사, 과거에 합격했을 때는 홍패(紅牌)고사, 고기잡이 나갈 때는 출어(出漁) 고사 등을 지냈다.

고사(告祀)는 땅에게 알린다는 뜻의 '고수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고수레는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조금 땅에 던져 주며 외치는 말로 간단한 제례의식이다. 조선후기에 고사가 유행한 이유는 전염병(傳染病)이 자주 돌고, 화재(火災)가 자주 일어나자 집안에 탈이 없도록 신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즉 안택(安宅) 또는 지신제(地神祭)의 가택신앙으로 시작하여 점차 기복(祈福)신앙 형태로 널리 퍼져나갔던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